당시 미국 방첩요원 "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헬기사격 목격담도 잇따라

전두환 재판 계기 5·18 규명 목소리 높다

계엄군 증언 이어지도록 5·18조사위 조속히 출범해야

전두환(88)씨에 대한 광주 법정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5·18 진상규명 분위기가 또다시 불타 오르고 있다.

전씨의 재판을 계기로 5·18 당시 전씨의 광주 방문설, 헬기사격 목격담이 이어지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5·18 민중항쟁 당시 주한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지난 14일 방송 jtbc 뉴스를 통해 "1980년 5월 21일 점심시간쯤 전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 1전투비행단에 도착했다"며 "전씨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 이재우 대령 등과 전투비행단 장실에서 회의를 했고 사살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헬기 기종은 UH-1H, 총기 종류는 M-60(기관총)이었다.

김씨는 증언 속 모든 내용은 정보원을 통해 취합한 정보로, 미국 정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정선덕씨도 지난 15일 KBS 뉴스에 출연해 "1980년 5월21일 오후 계엄군이 쏜 총탄에 부상 당한 남편을 찾기 위해 시민군 지프차를 타고 광주천변을 따라 병원으로 향하던 중 헬기에서 지프차 방향으로 '드드드드 씨웅'하는 사격소리와 함께 반짝반짝하는 불빛을 봤다"며 "헬기는 앞이 둥글고 뒤가 가는 형태로, 색깔은 군용차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은 지난 40여 년간 수차례 제기됐던 목격담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민군으로 활동한 김영이(69)씨도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나 " 21일 오후 1시께 금남로 무등맨션 10층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김선호(사망 당시 45세)씨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무등맨션이 금남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망장소가 10층이라는 점에서 헬기사격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5·18 당시 광주시 북구 교육대학교 인근에 거주했던 조광영(79)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5·18 때 도청 상공에 헬기 2대가 날고 있었다"며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총성과 함께 불꽃 튀기는 모습을 봤다"고 광주일보에 증언했다.

지난해 5월 광주 505 보안부대 수사요원이던 허장환(71)씨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월21일 오후 5시께 열린 보안대 회의에서 서의남(중령) 대공과장이 '오늘 사령관님이 다녀가셨다. 바쁘셔서 우리 부대에는 들르지 않았다'고 일러줬다"며 "회의가 끝난 후 통신병이 '자위력 구사, 실탄 지급' 등이 적힌 사령관 주재 회의내용을 보안과에 전문으로 보고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허씨는 전문에 전씨가 21일 오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를 방문, 헬기로 광주 일원을 살펴보고 전교사 기밀실에서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3·7·11공수여단장 등과 회의를 열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 회의에서 자위권 구사, 공수부대 시 외곽 철수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미국 방첩요원 김용장씨 증언 내용

전두환 5월 21일 광주 방문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과 회의
사살명령 하달로 美정부에 보고
21·27일 두차례 헬기 기총소사

5·18 당시 2군사령관(대장)을 맡았던 진종채 장군은 지난 1995년 검찰조사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 따로 내려와 (소준열) 전교사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전교사 작전참모였던 백남이 대령도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11시께 광주 공군 비행장에 전두환 사령관이 와 있는데, 전교사에도 갈지 모르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비행장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백 대령은 "노태우 사령관의 경우 직접 전교사 사령부 복도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수많은 목격담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5·18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계엄군 당사자의 증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5·18조사위가 빨리 꾸려지고 계엄군들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끝내…초등학교 앞 집회 연 보수단체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 회원 10여 명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동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산초 교장·교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 라돈 측정기 시민 대여 결과 보니

기준치 초과 대부분 라텍스·침대 매트리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4개월간 광주시민들에게 라돈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총 175건의 결과를 취합해 정리·분석한 결과 이 중 18%(33건)가 라돈 농도 기준치(148Bq/㎥)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측정대상은 매트리스, 라텍스, 흙침대, 돌침대, 온수 매트 등 침구류와 음이온제품, 대리석 건강기구 등 기능성 제품이며 이 중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가 기준치 이상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실내 농도 기준치를 적용하면 18%(33건)가 기준치를 넘었지만 WT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적용하면 37%(65건)에 달했다"며 "라돈 측정기를 대여한 시민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 안전 기준 초과 제품을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고, 라돈 관련 정보와 대응 요령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각 지자체들은 라돈측정기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라돈 측정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적극 알려야한다"면서 "특히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라돈 등 생활 방사능 관련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2차 라돈 측정기 시민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도 취합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여 기간은 1박 2일이며, 대여료는 무료로 보증금 1만원만 맡기면 된다. 문의는 062-514-2470.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캠핑장서 고기 굽다 '사람잡을 뻔'

텐트 안 연기 유입 아이 4명 치료

전북 정읍시의 오토캠핑장에서 피운 연기가 텐트 안으로 유입돼 어린아이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 35분께 정읍시 한 오토캠핑장에서 "아이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의식이 혼미해진 A(12)군 등 어린아이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화근은 고기를 굽기 위해 피운 번개탄이었다.

이날 자녀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은 B(34)씨 등 세 가족은 텐트 밖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으며, 식사를 하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자 아이들을 텐트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 과정에서 번개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도 텐트 안으로 유입됐다.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텐트 지퍼를 채우고 안에서 놀던 A군 등 4명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고, 병원 신세를 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아이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바람에 밀려 텐트 안으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야외에서 불을 피울 때도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영광서 예인선 침몰 2명 사망·1명 실종

영광 송이도 해상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께 영광군 송이도 서방 남서쪽 2㎞ 해상에서 부산 선적 44t급 예인선 '광양호'가 침수됐다. 사고당시 해역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18㎞ 떨어진 영광군 상낙월도 북서쪽 400m 해상에서 기관장 고모(66)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5시간여 뒤인 오후 3시 45분께에는 상낙월도 큰가마골 해변에서 선장 권모(73)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침몰 선박과 연결된 부선에 타고 있던 선원 박모(64)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으나, 광양호의 갑판장 김모(74)씨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구역을 10개로 나눠 경비함 17척, 항공기 10대, 민간어선 15척 등을 급파해 집중수색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된 갑판장 김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표류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 명예훼손 당사자 적격 공방

전두환(88)씨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전씨 회고록 관련 민사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형사 소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투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판사)는 지난 15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주심인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앞서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쓰였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5·18에 대한 비난이 곧 원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회고록에 원고 단체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18 단체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단체는 회고록에서 부당하게 비난당한 5·18 참가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당연히 5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인의 인격권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하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형사재판 진행,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지켜보며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인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물작업 70대 파도 휩쓸려 숨져

17일 오전 7시 40분께 신안군 하의면 바닷가에서 그물 작업을 하던 A(70)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후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사고 현장 인근 갯바위에서 수색에 나선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B(48)씨는 A씨를 구조하려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파도가 높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85억 짜리 순금 황금박쥐상 훔치려던 3인조 추적

남성 3인조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85억원 상당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다 도망가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함평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1시 35분께 함평읍 수호리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침입하려 한 남성 3명을 추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곳에 전시하고 있는 금 162㎏·은 9㎏·동 13㎏으로 만든 85억원 상당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시관 입구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침입하려던 중 사설 경비업체 경보장치가 울리자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공사용 쇠망치에서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학교에 흉기 든 남자 있다" 초등생 장난전화에 한바탕 소동

쌍나팔

○…초등학생이 112에 "학교에 흉기를 든 남자가 있다"고 장난전화를 걸어 한바탕 소동.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8·초 2)군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고 신고한 뒤 휴대전화를 바로 껐으며, 긴급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형사과·여성청소년과·기동순찰대·방림지구대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다는 것.

○…경찰은 끝내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학교 교무실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 소지 학생을 파악해보니 A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군에게 장난전화의 심각성을 설명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8타경 7048	1	목포시 남악로22-10, 비-1동 지하1층 비105호 [옥암동,펠리시티몰] 40.6779㎡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대지/임야/전답]					
2018타경 3398	1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594-12 1078㎡[비닐하우스소재.농지로이용중.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47,432,000 47,432,000	소재불명의타인소유건물이대장상등재
2018타경 51915	1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425-5 265㎡	잡종지	2,650,000 2,650,000	맹지
2018타경 52970	1	목포시 용당동 972-97 46㎡	전	9,476,000 9,476,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
2018타경 53287	1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933-18 2750㎡	전	193,238,000 193,238,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3,5~7맹지.목록2,6일부구거
		동소 1006-2 387㎡	답		
		동소 1017 1765㎡	답		
		동소 1006 1190㎡	답		
		동소 1006-4 783㎡	답		
		동소869-58 119㎡[일부묘지,수목매각제외]	전		
	2	동소 869-71 509㎡	대	49,855,000 49,855,000	제시외건물매각제외,수목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8타경 5912 2018타경 52925 [중복]	1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1712, 1층 101호 [제1동] 51.4852㎡	숙박시설	639,000,000 639,000,000	일괄매각.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현황증도가온26내 숙박시설[펜션]으로이용중
		동소 1712, 1층 102호 [제1동] 51.4852㎡	숙박시설		
		동소 1712, 2층 201호 [제1동] 51.4852㎡	숙박시설		
[자동차,중기]					
2018타경 50356	1	사용본거지: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639 등록번호:13도0580 차명:SM6 연식:2016	자동차	20,000,000 20,000,000	보관: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
2018타경 52437	1	사용본거지: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역리[역리,51-12] 등록번호:전남71자8654 차명:뉴슈퍼에어로시티[전세버스] 연식:2009	자동차	21,000,000 21,000,000	보관장소:무안군일로읍535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9. 4. 1.[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9. 4. 8.[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김신호